전남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 선언

보성서 실천대회…관계자 750여명 참석

기업 품질 향상 ·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주관한 전남지역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가 6일 보성 다비치콘도 1층 제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실천대회는 전남지역 노사민정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석동헌 전남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장,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준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등 전남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75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산업평화 실천대회를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노사민정은 이날 선언에서 근로자들은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앞장서며 사용자는 전남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민간단체는 도민의 의식개선과 지역 환경보호 이웃돕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에 동참키로 했다.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사상생을 위한 오늘의 공동선언이 노.사간 이해의 폭을 넓혀 산업평화가 정착됨으로써 잘사는 전남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으뜸 전남을 실현하는데 노사민정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시, 친절 · 따뜻함으로 선수단 맞이한다

이용섭 시장, 무안공항서 스페인 선수단 환영 행사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스페인 선수단 환영행사에 참석해 스페인 선수단, 시민 서포터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들에게 광주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환영 · 환송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7일 오후 무안공항에서 이용섭 시장과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시민 서포터즈 등 200여명이 공항에 도착한 스페인 선수단 23명에게 '비엔베니도스 아 광주(Bienvenidos a Gwangju,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용섭 시장은 선수단에게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고 스페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시민 서포터즈도 환영의 플래카드를 들고 색소폰으로 스페인 민요 연주와 우리나라 전통 사물놀이 공연 등을 통해 선수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광주시는 이번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30일까지 무안공항, 광주공항, 광주송정역으로 입 · 출국하는 120개국 750여명의 선수, 임원들을 대상으로 19회에 걸쳐 환영 · 환송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서포터즈와 민간단체 등 150여명이 광주 · 전남을 대표하는 각종 공연, 환영 플래카드, 피켓 등을 통해 선수단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특별 서포터즈인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참가선수, 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전통시장 등 광주의 관광 · 쇼핑 명소를 안내하고 기념품을 제공해 광주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 서포터즈는 경기가 시작되는 12일부터 총 556개팀 3만1582명이 참여해 경기일정별로 응원을 전개하며 수영대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스페인 선수단의 광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한다"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 시민들은 정성을 다해 선수단을 모시겠고, 대회도 완벽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전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오픈워터수영경기장을 방문해 제반시설 등 대회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서은홍 기자

김기태 전남도의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와 도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가 최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 · 순천1)은 "전라남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전라남도와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면서 "특히 민원인을 상대하는 전남도의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나, 현재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분야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이 도내 민간 기업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확산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내용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 매뉴얼 제작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동구, 보건소에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광주 동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안내도우미를 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동구는 전체인구수 중 어르신 비율이 22%가 넘는 점을 고려, 각종 의료용어 등으로 보건민원 업무에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연계한 안내도우미를 배치했다.

안내도우미는 11월말까지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접수지원, 각종검사, 예방접종, 진료 등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동구는 보건소에 냉 · 난방기를 통합 설치해 각 실을 개방, 민원인들의 방문접근성을 높이는 등 주민중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광주 서구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신규 모집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4개 사업에 대해 모집한다. 특히, 금년에 서구는 6차례에 걸쳐 생계수급 가구 내 일하는 청년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후렛을 제작, 동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상담 및 가입자 발굴에 나섰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남구, 재정확대 추진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

광주 남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 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5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와 고용 감소 우려 등을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확장 운용함에 따라 재정지출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를 비롯해 당초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확대 비율, 일자리 사업 예산 확대, 자체 우수사례 발굴 등 3개 분야 8개 지표에 따라 이뤄졌다.

북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광주 북구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단속'에 나선다.

북구는 "7월부터 8월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우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북구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오는 8월말까지 집중적인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광산구, 통합사례관리 가이드 맵 제작 · 배포

광주 광산구가 현장 통합사례관리자의 업무를 돕는 복지자원 가이드 맵 〈2019 광산수레바퀴〉를 제작,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협력기관에 배포했다.

〈광산수레바퀴〉는 구에서 진행하던 사례관리를 동에서도 수행하면서 민간 · 공공 현장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자원 발굴과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관별 복지정보와 주요 사업내용을 담아 2016 · 2017년 두 차례 제작됐다.

〈2019 광산수레바퀴〉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광산구 희망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수년 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복지자원과 '휴먼서비스 네트워크' 사업, 21개 동 복지자원 · 자료 등도 포함돼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가이드 맵을 활용해 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더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로 주민의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광산수레바퀴〉는 광산구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다.

임형택 기자

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정인옥[1957. 1. 1.생, 2019. 4. 9. 사망, 최후주소 광주 서구 상일로 37, 103동 1703호(쌍촌동, 모아제일아파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2019. 5. 28.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88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6. 21.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재산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883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정영우
광주 서구 상일로 37, 103동 1703호(쌍촌동, 모아제일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6.21.
공고기간: 2019.7.8.부터 2019.9.9.까지(2개월 이상)
신고 장소: 광주 동구 지산로 71-1(지산동)법무사 조기혁 사무소
전화 : 062-236-1255, 1257)
2019.7.8.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 인 설 립 ■기 장 대 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 업 진 단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